

생태학교(ECO-School)와 새로운 환경교육 전략 활동 탐사 및 호주 국립공원 자원봉사(ATCV) 활동 프로그램 참여하기



단체명	환경을 사랑하는 교사 모임
연수기간	2002년 7월 23일~8월 1일(12일간)
연수인원	박경진(인천부개서초등학교 교사) 최성곤(창덕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순덕(장량초등학교 교사) 홍경민(오태초등학교 교사) 이 산(호주 환경연구 회원)

1. 목적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환경교육도 교사가 알고 있는 이상의 것을 교육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교사들끼리 환경연구회를 만들어 서로의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국내 환경교육에 여러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된 활동 대부분이 일본에서 연구되어 보급된 것이 많아 보인다.

그리하여 본 연수는 전 국토를 국립공원화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독특한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호주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가하여 탐사하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알아보고, 우리의 환경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지구 환경문제는 이제 특정지역이나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있으며, 이는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 대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교육의 중요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레이첼 카슨은 ‘안다’는 것은 ‘느낀다’는 중요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아동기 체험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명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육현실은 아이들과 손쉽게 자연 속으로 나가 환경교육을 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조차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환경교과조차 없으며, 중·고등학교 선택 과정으로서의 환경교과도 대부분 이론에 치우칠 뿐 아니라 학교 생활면에서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권장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수를 통해 호주 시드니의 환경프로젝트 우수학교로 선정된 크로머 초등학교(Cromer Schools)를 탐방하여 그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학교(ECO-School) 프로그램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 학교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OZ GREEN OUR PLACE 프로젝트’ 및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규 교과로 채택하여 지도하고 있는 교육과정 ‘사회와 환경(Society & Environment)’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로얄국립공원(Royal National Park)에 근접한 학교로서 자연 및 인공 환경이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히스코테 고등학교(Heathcote High School)를 탐방하여 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숲길걷기(bushwalking), 암벽등반(abseiling), 스노클링(snorkelling), 자전거타기(cycling)와 같은 다양한 옥외 활동 프로그램 및 범교과적 자연보호 활동(예: 사회, 과학, 화학 교과의 통합적 학습활동으로 지역의 시냇물의 수질 측정활동) 등을 직접 경험해 보고, 환경 교과인 ‘황무지 연구(Wilderness Studies)’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의 7차 교육과정 환경 교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드니 대학교(The University of Sydney)의 생태 환경연구소 활동 참관 및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 프로그램 활동 참가를 통해 초·중·고교와 대학간의 연계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드니 지역의 호주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ATCV: Australian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s)에 참가하여 호주의 지역사회 환경교육 체험을 통해 우리 환경교육에의 접목 방법 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일정

<표 1> 일정표

일 정	활동 내용
5. 20~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 지원자 사전 협의 모임 ▪ 역할분담 및 사전 자료 준비 ▪ 호주 현지 학교에 협조 공문 발송 ▪ 호주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ATCV) 참가 신청하기
7.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항공권 예매 및 보험 가입 ▪ 탐사 장비 및 준비물 갖추기
7. 23~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학교(ECO-School) 탐방(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로마 초등학교 탐방(26일) - 스테이트 초등학교 탐방(24일) - 히스코테 고등학교 탐방(25일) -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탐방(29일) - 시드니 대학교 탐방(29일) ▪ 호주 국립공원 자원봉사(ATCV) 활동 참가(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지역 참가(30, 31일)
8. 2~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해외연수 활동 보고회 ▪ 호주 해외연수 활동 보고서 작성 ▪ 각종 탐사활동 사진 출력 및 보고서 출판 ▪ 재단 보고서 제출하기

3. 내용

<표 2> 일정별 내용

구 분	프로그램	준비물
크로마 초등학교/ 스테이트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학교(ECO-School) 프로그램 연구 ▪ 'OZ GREEN OUR PLACE(우리의 녹색 지구를 위하여)' 활동 ▪ '사회와 환경(Society & Environment)' 교재 연구 등 	필기구, 카메라, 캠코더, 장갑, 침낭, 매트, 파카, 배낭, 등산화(작업용 긴 신발), 우의, 손전등, 긴 옷, 물통, 수영복, 모자, 썬크림 (자외선 지수 높은 것), 방충제, 방충망, 물파스 등
히스코테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옥외 활동 프로그램 탐사 및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길 걷기(bush-walking) - 암벽등반(abseiling) - 스노클링(snorkelling) - 자전거타기(cycling) ▪ 범교과적 자연보호 활동 탐구(사회, 과학, 화학 교과의 통합적 학습 활동으로 지역 시냇물의 수질측정 활동) ▪ '황무지 연구(Wilderness Studies)' 환경교재 분석 ▪ 우수한 인공 환경 조경 연구 등 	
뉴사우스 웨일스대학교/ 시드니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환경연구소 활동' 조사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 프로그램 활동 조사 ▪ 초·중등 연계교육 방안 탐구 등 	
호주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ATC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호주의 자연보호와 환경 보존 활동 체험하기 	

가. 환경프로젝트 우수학교(크로마 공립초등학교, 스테이트 초등학교) 탐방

<표 3> 탐사 방법

구 분	탐사 관점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학교(ECO-School) 프로그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환경 프로젝트 연구 ▪ 예산 지원 문제 ▪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및 프로그램 연구 담당 교사와 면담 ▪ 프로그램 연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Z GREEN OUR PLACE (우리의 녹색지구를 위하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세부 계획 조사 ▪ 학생들의 활동 견학 ▪ 교사의 역할 ▪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연구 ▪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 탐색 ▪ 활동 교사와 면담 ▪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와 환경 (Society & Environment) 교재 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분석 ▪ 환경 분야 조사 ▪ 학년별 심화단계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연구 (연수 참가자가 학년별로 나누어 교재연구 하기) ▪ 지도교사와 면담 ▪ 학생들의 토론

1962년에 세워진 공립초등학교로 시드니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Cromer Public school Carcoola Road Crmer 2099) 시드니 시내와 적당히 떨어져 교통이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위는 아름다운 공원들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공원 한복판에 학교가 세워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호주의 학교는 대부분이 마치 공원 같음) 이런 여건상 학생들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야외 활동(outdoor education)을 하기에 적합하다.



이 학교는 특히 환경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 주변 환경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나의 나무 가꾸기’이다.

4학년이 되면 희망에 따라 자기 나무를 심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 인근의 버려진 사유지를 정리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다. 그 결과 10여년 전 버려졌던 땅이 오늘날 정리가 잘된 울창한 숲으로 변모하였다.

이 일은 환경단체(Oz Green-global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Incorporated)와 협력하여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 중 ‘Oz Green’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니저가 발런티어(보조교사)로 직접 아이들과 함께 숲을 가꾸고 나무 심는 일을 도와주며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쳐 주고 있었다.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Judy Charnaud씨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고장을 사랑하며 지금보다도 더 깨끗한 자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꿈이라고 했다.

Judy Charnau씨는 ‘Oz Green’ 단체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예순이 훨씬 넘은 나이지만 크로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냇가 청소하기, 나무심기, 나무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의 이론적 환경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연계하여 체험 중심 환경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잘 보여 주었다.

크로마 초등학교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매주 한 번 환경의 날을 정하여 학교 주변 청소 및 버려진 숲 가꾸기
- 둘째, 나의 나무 심고 가꾸기
- 셋째, Oz Green 환경 단체와의 연계 교육

Oz Green은 호주에 있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비영리 환경운동 단체이다. 한 부부 교사가 환경운동, 특히 물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세계에 걸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다. 깨끗한 물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이 단체의 주요 사업이다. 지금은 1997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특히 수질 보호에 초점을 맞춤)을 운영하고 있다.

NSW, 퀸스랜드, 남부 오스트레일리아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인디아, 사우스 아메리카, 케냐, 폴란드, 뉴기니아,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정보를 나누고 있으며, 세계 약 90여개 학교와 연계하여 환경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많은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수질오염을 측정하고 물의 성분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하천 및 강가 청소하기, 학생 모터니티제 운영을 통한 수질 감독하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크로마 초등학교는 이 단체와 연계하여 방학 중 학생들을 이들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고 있다.

(<http://www.ozgreen.org.au>)

넷째,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재 운영. 이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재 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환경 교육 교재(The primary Workbook) 목차

-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들(Hands-on activities)
 - 학교 앞 시냇물 양 측정하기, 물가나 물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 이름 찾아보기
 - 물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나 벌레들 관찰하기
 - 학교 앞 냇가의 상류, 중류, 하류의 모습 관찰하기 등
-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하는 긍정적인 생각들
 - 바깥의 공기 체크하기
 - 날씨에 대한 이해
 - 공기 오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 누가 공기를 보호해야 하는가?
 - 공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bushfire)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can I do?) 등

♣ 시사점

첫째, 주변 환경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학교가 연계된 숲 가꾸기 및 보호 활동의 생활화를 통해 총체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우리의 학교 환경교육도 학부모, 지역 단체들과 연계한 총체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겠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

셋째, 우리나라도 환경보호의 날을 정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주변 청소 및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대부분 휴지 줍기 등 형식적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야겠다.

넷째, ‘1인 1나무 가꾸기’는 학교 나무에 이름표 달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나의 나무 가꾸기’ 등 적극적인 식목 행사와 나무가꾸기 운동에 앞장서야겠다.

다섯째,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인 자연을 가꾸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일에 현직 교사와 학생이 앞장서 자연사랑의 불길을 지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부부 교사가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물 보호 운동을 시작했다는 ‘Oz Green’으로부터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교사의 환경교육에 대한 열의는 자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그 어느 교육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여섯째, 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재량활동 시간(초등학교 68시간, 중학교 136시간, 고등학교 204시간)은 학생의 요구,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에 의해 학교 및 교사가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스테이트 초등학교
탐방**



♣ 시사점

첫째, 교문이 따로 없다. 단지 학교라는 표지판만 있다. 과시적이지 않다.

둘째, 모두 잔디로 된 운동장이 대단히 넓다.

셋째, 실내 공간이나 벽에는 예쁜 그림들로 꾸며져 있다.

넷째, 놀이시설 밑에는 잔디 아니면 나무껍질이 다듬어져 깔려 있다.

다섯째, 관찰시 집이나 관공서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풀어 놓을 사육장이 마련되어 있다.

여섯째, 화장실의 세면대가 좁은 공간에 알맞게 반쪽짜리가 설치되어 있다.
 일곱째, 교문 앞에는 칠판으로 된 게시판이 있다.
 여덟째, 교실이나 복도의 환경이 아동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고, 보여주기 위한 환경은 없었다. 모든 시설들이 환경친화적이고 실용적이다.

나. 히스코테 고등학교의 새로운 환경교육 전략

<표 4> 탐사 방법

구 분	탐사 관점	방 법
새로운 환경교육 전략 (Environmental Education strategy)의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환경교육 전략 조사 ▪ 우수한 인공 환경 조경 연구 예산지원 문제 ▪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및 프로그램 연구 담당 교사와 면담 ▪ 프로그램 연구 분석
다양한 옥외 활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길 걷기(bushwalking) - 암벽등반(abseiling) - 스노클링(snorkelling) - 자전거타기(cycling) ▪ 학생들의 호응도 ▪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체험하기 ▪ 담당자와 면담 ▪ 학생들과 토론
범교과적 자연보호 활동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세부 계획 조사 ▪ 학생들의 활동 견학 ▪ 교사의 역할 ▪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체험 ▪ 통합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냇물의 수질 측정활동 등 ▪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 탐색 ▪ 활동 교사와 면담

히스코테(Heathcote High School)는 1960년에 세워진 공립 고등학교로서 전교생 905명의 이상적 학교이다. 특히 로얄국립공원(Royal National Park)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여러 가지 야외 활동(Outdoor education)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경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범교과적 환경교육 코스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예비단계 코스는 120시간으로(Preliminary Course: 120 indicative hours) 다음 각 4분야에 30시간씩 할당을 한다.

- 지구와 지구의 환경(Planet Earth and Its Environment-30 indicative hours)
- 우리 고향의 환경(The Local Environment-30 indicative hours)
- 물 문제(Water Issues-30 indicative hours)
- 역동적인 지구(Dynamic Earth-30 indicative hours)

둘째, 고등학생들을 위한 코스(HSC Course 120 hours indicative hours)이다. 예비단계 코스는 HSC 코스를 위하여 운영하는 전 단계 코스이다. HSC 코스는 a, b 코스로 나누어 운영된다.

- a코스: 다음 3분야별 30시간씩 90시간을 필수로 이수한다.
 - 지각 변동(Tectonic Impacts-30 indicative hours)
 - 환경의 역사 (Environments Through Time-30 indicative hours)
 - 국가의 환경을 보호하는 일(Caring for the Country-30 indicative hours)
- b코스: 다음 4분야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30시간을 이수한다.
 - 해외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종(種)과 오스트레일리아 환경 (Introduced Species and the Australian Environment)
 - 천연 지질학(Organic Geology): 재생산되지 않는 자원(A Non-renewable Resource)
 - 채광(광산)과 오스트레일리아 환경(Mining and the Australian Environment)
 - 해양학(Oceanography)

히스코테 중고등학생들은 위의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60시간씩 4년에 걸쳐 240시간의 환경교육을 특별히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 했을 때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선택형 교육과정 및 재량활동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 관련 과목을 별도 개설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히스코테 학교 학생들의 몇 가지 자발적인 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히스코테의 학생들은 고향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몇 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그 고향을 흐르는 냇물(local streams)의 수질오염도 등을 연중 체크하여 사회과학, 화학 시간에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또한 지역의 정비공장에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고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설문조사 및 방문을 함으로써 감시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결과에 대해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학생 공장보고서(Industry Survey Presentation)를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한다.

암기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현실과 비교해 볼 때 학생 스스로 수치를 측정하고 자료를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생동감 넘치는 수업 현상이 너무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대학 진학 위주의 암기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습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그 외 학생들의 선택학습(Extra Curriculum)>

히스코테 고등학교는 선택학습으로 한 달에 한 번(주로 금요일 4시간 할당) 야외활동 프로그램(Outdoor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8~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 여부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정규수업 시간이 끝난 뒤에 실시되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선택활동이다. 야외 활동은 주변의 천연 환경을 이용한 친환경적 프로그램으로 숲길 걷기(bushwalking), 암벽등반(abseiling), 수영 및 파도타기(snorkelling), 자전거 타기(cycling) 등이 있다.

이 활동은 정규 교과목은 아니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중요한 학생 활동 중의 하나이다. 이 활동은 주로 4~5명씩 팀을 이루어서 참가하며 남녀가 한 팀으로 협동하여 활동한다. 이 활동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주며, 서로간의 협동심과 유대감도 길러준다. 이 활동을 마친 한 학생의 소감을 들어 보았다.

(팀, 히스코테 10학년 재학) "전 처음에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abseiling) 친구들에 의해 강제로 오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일을 끝마치고 나니 제 마음에 즉시 작은 변화가 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끝까지 참아낸 내 자신에 대해 무척 만족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한결같이 더욱 더 성숙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그들의 삶에 주어진 환경(숲길 걷기, 암벽타기, 수영 등)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이런 소중한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아울러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긴다.

♣ 시사점

첫째, 주어진 환경을 적극 이용하여 교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내하는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

둘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많고,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자기주도성이 길러진다.

셋째, 즐기면서 하는 체험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자연스럽게 환경과 하나가 된다.

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환경연구소 탐방

<표 5> 탐사 방법

구 분	탐사 관점	방 법
생태환경연구소 활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소의 프로젝트 탐구 예산지원 문제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담당자와 면담 프로젝트 연구 분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프로그램 활동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주민들의 호응도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탐구하기 담당자와 면담 지역사회 참가자와 토론
초·중등 연계교육 방안 탐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교육 방안 조사 학생들의 활동 견학 지도자의 역할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연구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 탐색 활동가와 면담 지도자와 면담



재활용 옥조 이용



자생식물 종보존



연구소 내 퇴비장



뉴사우스웨일즈대
부설연구소



실외연구소



뿌리 덮개 이유

♣ 시사점

첫째,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여 이론과 실재를 접목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재활용 옥조의 이용 방법, 재생 종이를 이용한 염색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셋째, 사회 및 초·중·고교와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소를 개방하여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라. 호주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ATCV) 시드니 지역 참가하기

<표 6> 탐사 방법

내 용	방 법	탐사 관점
국립공원 등지를 돌며 자연보호 및 감시자로서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전체 프로그램은 6주 이지만, 1주일 단위로 지역을 이동함 -본 연구회에서는 시드니 지역 1주일만 참가하여 활동하기로 함 ▪ 준비물은 개인이 지참함 -장갑, 침낭, 매트, 파카, 배낭, 등산화,(작업용 긴 신발), 우의, 손전등, 긴옷, 물통, 수영복, 모자, 썬크림(자외선 지수 높은 것), 방충약, 방충망, 물파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담당자와 면담 ▪ 프로젝트 연구 분석 ▪ 지역사회참가자와 토론 ▪ 지도자와 면담 ▪ 지역사회 주민들의 호응도 ▪ 교육적 효과 ▪ 학교교육과 연계교육 방안 ▪ 지도자의 역할
자생식물이나 희귀식물의 씨앗 채취 및 희귀 동식물 보호 활동		
유해식물을 제거하거나 부서진 동물 서식지를 복원		
공원의 도로 등지의 보수작업,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한 활동		

ATCV란 Australian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s의 약자로 호주국립공원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을 말한다. 1982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신청자들에게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주고 있으며, 호주의 자연보호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회에서는 시드니 지역 활동에 이틀간 참가하였다.



시드니 ATCV 본부

ATCV 참가 활동 안내

산림운동가로의 ATCV 활동

로얄 국립공원은 그 규모가 워낙 커서 거대한 자연 원시림을 연상케 하였으며,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모습이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린 자연 그 자체였다. 울창한 산림을 돌아보며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엄청난 인원과 경비가 소요되리란 생각이 들었고, 비로소 ATCV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짐작되는 바였다. ATCV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립공원 등지를 돌며 자연보호 및 감시자의 역할하기
- 둘째, 자생식물이나 희귀식물의 씨앗 채취 및 희귀 동식물의 보호활동
- 셋째, 유해식물을 제거하거나 부서진 동물 서식지를 복원하기
- 넷째, 공원 도로 등지의 보수작업 및 토양유실 방지 활동

위 내용 중 우리는 자연보호 활동을 주로 하였다. 활동 내내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보호활동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 복원 활동이 대부분인 데 비해, 호주 국립공원의 그것은 자연 그 자체로 손상되거나 엷힌 것을 우리 인간이 도와준다는 의미의 자연보호 활동이었다. 자연을 사랑한다기보다 자연을 삶의 일부로 또는 동반자로 생활하는 그들은 공원을 찾아 쉬지만, 쓰레기나 오염원 발생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있었다. 부럽기도 하고 반성도 되는 점들이었다.

오염된 환경에 열을 올리며 복원시키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있는 것을 지키며 키워나가는, 적어도 환경에 관한 한은 우리보다 한결 앞선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방대한 천혜의 자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의 앞선 점은 소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연이기보다는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환경마인드였다.

♣ 시사점

환경교육의 장에 있어 현장체험 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회원들의 ATCV 참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생명의 터전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자연관 및 자연보호 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어 단순한 지식 위주의 환경교육의 틀을 벗어나 현직교사인 회원들이 직접 ATCV에 참가해 봄으로써 생활과 괴리된 환경관이 아닌 삶 그 자체로서의 환경관을 아동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말하자면 휴지를 즐기보다는 버리지 않는 교육이 더 중요하듯이- 환경을 늘 내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학교 환경교육의 편중을 보다 근원적인 교육으로 정립해 가야겠다. 우리의 환경교육은 지나치게 오염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뭐든 되살려야 하는 것, 그것만이 환경교육은 아닐 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보다 근본적이고 정확한 환경관을 정립하여 교육할 때 비로소 살기 좋은 환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현재와 미래를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가. 연수 결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이론적으로 몇 번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현장교육에 적용하기도 쉽고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나라 전체가 잘 가꾸어진 공원 같았다. 생활 주변의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체험 중심적 프로그램은 호주의 학교 교육의 특이점이었다. 우리도 계획은 잘 세워져 있으나 실행이 미흡하여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사회와의 연계성 또한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호주의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동들을 직접 체험하고 탐방하면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 ② 환경교육은 실제 체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학교·사회의 연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③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전반에 편재해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교과로 분리되어 있지만 교사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 필요하다. 환경은 곧 생활의 장이므로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기획 의도 및 성과

학교간 이동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공문에 의한 정확한 일정 미비로 교재 분석 등은 실행하지 못했으나, 체험한 장소의 모든 먹거리, 시설 등이 자연친화적이었으며, 나아가 잘 보존되고 가꾸어진 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과는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다. 제언

충분한 일정 조율과 방문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최초 기획의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겠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기는 것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연수에 적합한 복장과 협조 단체에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다.

교육 시안 1

1. 목적

학교 조경공간과 담장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른 건물들처럼 매일 오가는 화단의 나무들에 대해 관심 없이 지나치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나무 이름을 알게 하고, 나의 나무를 정하여 돌보게 하고, 학교 식물 퀴즈대회 등을 통해 관심을 지속시킴으로써 학교 사랑과 동시에 식물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식물을 아끼고 보호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환경친화적인 의식과 행동을 길러 주고자 한다.

2. 방침

- 가. '학교나무 이름 알기 대회'를 통해 나무 이름을 알도록 한다.
- 나. 학교 나무 중에서 '나의 나무'를 정하여 돌봐 준다.
- 다. 교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 라. '학교 식물 퀴즈대회'를 통해 학교 식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하도록 한다.

3. 활동의 실제

가.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알기 대회

단 원 명	학교 나무 돌보기	차 시	5-29/35
학 습 목 표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을 찾고 나의 나무를 정해 돌볼 수 있다.		
학 습 자 료	교정의 나무, 컴퓨터		

교정에 있는 나무에 빈 이름표를 달아 놓고, 나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오도록 공모했다. 방과 후나 일요일 등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거나, 식물도감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스스로 찾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한다. 교사는 그 이름이 맞는지 식물도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후, 이름을 바르게 알아온 친구에게는 상품을 수여하고 식물박사 스티커를 주고 학기말에 시상한다.



교사가 그냥 단순하게 나무 이름을 알려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별다른 관심도 못 느끼지만, 자신이 이름을 찾아 그 나무의 식생, 쓰임 등에 대해 알아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나무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부분 자기가 알아온 나무를 '나의 나무' 로 정했다.

나. '나의 나무' 정하기

우리 학교의 조경 공간과 울타리 등에는 교목인 은행나무가 127그루, 무궁화, 개나리, 자귀나무, 등나무 등이 43종이나 분포되어 있다.

무심코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도 키와 몸집,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나무들도 그러하다. 아이들이 교정에 있는 나무 중 자신의 나무 한 그루를 정하여 그 나무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나무와 대화하며, 그 나무가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무를 보살피면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정한 '나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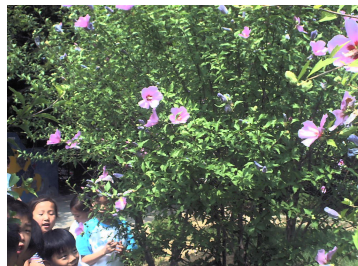
친구이름	나무 이름	친구이름	나무 이름	친구이름	나무 이름	친구이름	나무 이름
신현규	은행나무	류동규	주목	변영탁	밤나무	손정석	감나무
박희란	무궁화	이정렬	라일락	김동현 이성웅	측백나무	홍정후	정원측백나무
권채연	개나리	이건희	잣나무	배인호 김주상	매실나무	이도훈	울타리 측백나무
최은숙	대추나무	조윤수	영산홍	홍동건 전귀재	자귀나무	이혜수	황금측백나무
김은경	벚나무	최용민	적단풍나무	전민기 오승일	등나무	이현서	장미
허기훈	왕벚나무	이수한	청단풍나무	권세현	능금나무	신다슬	아까시아
김수정 홍아라	산수유	이정훈	플라타너스	김민지	목백일홍	김기쁨	사철나무
박수영	향나무	지동현	오동나무	김효승	소나무	정성철	철쭉

다. 교정에 있는 '나의 나무'

단 원 명	학교 나무 돌보기	차 시	5-29/35
학 습 목 표	교정에 있는 나의 나무를 관찰하고 돌볼 수 있다.		
학 습 자 료	교정의 나무		



능금



무궁화



산수유나무

자신의 나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변화를 관찰하고, 나무의 이름과 쓰임 등을 조사하면서 모두들 나무 박사가 되어 갔다. 자신의 나무에 대해 자랑하는 글도 쓰고, 알고 있는 것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기도 하고, 이름을 모르던 나무들에게 이름표도 달아주었다.

라. 교목 '은행 나무'

단 원 명	학교 나무 돌보기	차 시	5-29/35
학 습 목 표	교정에 있는 교목 은행나무를 관찰하고 돌볼 수 있다.		
학 습 자 료	교정의 나무		

학교 담장 둘레에 높다란 은행나무가 127그루나 Bing 둘러쳐져 있다. 봄에 가지만 있을 때부터 신록의 여름을 지나 여름방학 때만 해도 파란 열매였는데, 이제는 노란 은행이 아침마다 수북이 떨어진다.

“선생님, 은행에서 똥냄새가 나요.”

“왜 똥냄새가 날까?”

“은행이요, 자신의 열매를 보호하려고요. 냄새가 나면 새들이 못 먹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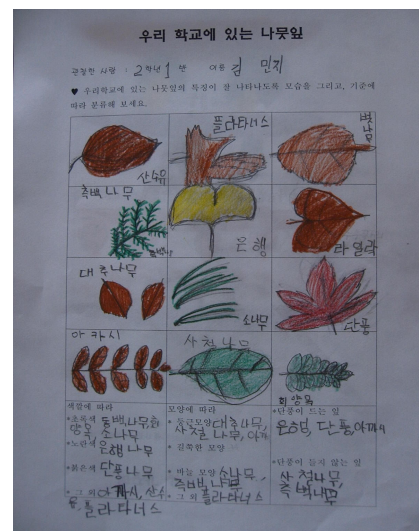
떨어진 은행을 주워서 냄새나는 걸껍질을 벗기고 은행을 만들었다. 레인지에 은행을 구워 와서 한 알씩 맛보았다. 은행을 처음 먹어보는 친구들도 44명이나 되었다.



마. 학교에 있는 나뭇잎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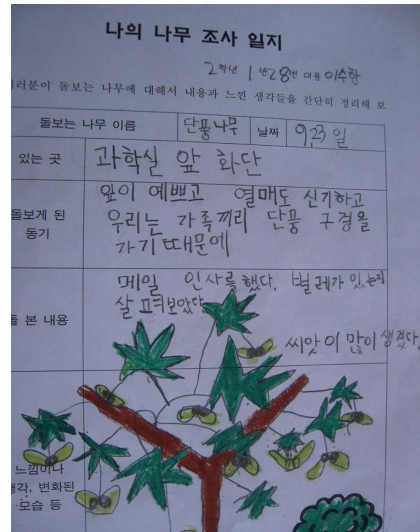
단 원 명	학교 나무 돌보기
차 시	5-29/35
학 습 목 표	교정에 있는 나뭇잎을 보고 나무 이름을 말할 수 있다.
학 습 자 료	교정의 나뭇잎

자기가 학교에서 본 나무 잎들을 그렸다. 나무에 따라 잎과 키, 열매, 껍질, 쓰임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무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학교 나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돌보면서 무의미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아주 의미 있는 나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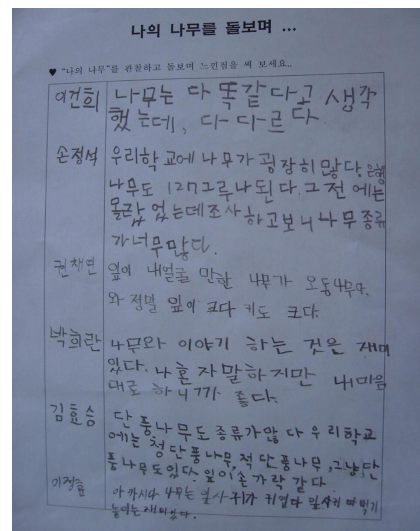
바. 나무 조사 일지 쓰기

단 원 명	학교 나무 돌보기
차 시	5-29/35
학 습 목 표	교정에 있는 나무조사 일지를 쓸 수 있다.
학 습 자 료	교정의 나무, 조사 일지
<p>자신의 나무를 돌보고 변화를 관찰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관찰 일지를 쓰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나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식물의 변화를 체험하게 했다.</p>	



사. 활동후 소감

단 원 명	학교 나무 돌보기
차 시	30-33/35
학 습 목 표	학교 나무를 돌본 소감을 발표할 수 있다.
학 습 자 료	학교 나무



<환경교육과 접목시킨 미술교육의 실제>

1. 맨발로 흙 밟아 보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 맨발로 부드러운(혹은 나뭇잎이 섞인) 흙을 밟아 보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추상 혹은 비구상으로 나타내기, 선으로 나타내기 등)

- 만약 이 지구상에서 흙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 흙이 모두 오염되어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 건강한 흙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해 보기
- 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2.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녹색의 종류를 알아보기

: 연두색, 연한 노랑색, 녹색기가 있는 겨자색, 녹색, 진한 녹색, 청록색, 청색 등

- 녹색만을 사용하여 그림 그려보기
 - 녹색의 세상 만들기
- 녹색만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을 다른 그림과 비교하여 그 느낌을 말해 보기
 - 신선하다, 시원하다, 살아 있는 것 같다 등등
- 녹색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 녹색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 푸른 숲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는?
- 녹음이 짙은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3. 눈감고 나무껍질들 만져보고 그 느낌을 표현해 보기

: 소나무껍질,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등

- 나무마다 느낌이 모두 다르다
 - 꺼칠꺼칠 하다, 부드럽다, 매끄럽다, 거칠다 등
- 각각의 나무껍질들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크레파스나 4B 연필로 문질러 보기
(각기 다른 아름다운 무늬의 판화가 찍혀져 나온다-나무 프로타쥬)
- 이 작품들을 보고 느낌을 글로 써보기 혹은 나무에게 편지 써보기

(예시; 소나무야, 난 오늘 네 껍질 위에 도화지를 놓고 크레파스로 문질러 보았는데,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직접 만져 보니 그 결이 느껴지면서 네가 숨쉬고 있다는 걸 알았어. 앞으로는 널 더욱더 사랑하게 될거야)

- 이런 소중한 나무들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4. 식물의 열매를 따서 찍어 보기

: 오동나무 열매, 은행, 쥐똥나무 등의 열매를 이용하여 찍어보기

- 여러 가지 식물의 열매들은 좋은 판화용 찍기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 식물들은 왜 열매를 맺는가?
 - 종족 보존, 번식을 위해서
- 식물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 최근 밝혀진 한 보고서에 의하면 식물도 통증을 느끼며, 서로간의 경쟁을 하고, 먼 거리를 다른 생물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동하며, 동물이 느끼는 것과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 자연 보호는 곧 '종(species)의 다양성'을 말한다. 각기 서로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토의해보기(※생물종다양성 협약)
- 우리 주변의 자연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토의해보기

5. 식물에 얽힌 작은 이야기들을 읽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 이팝나무와 다래
 - 천정에 가면 이팝나무 꽃필 때가 아닌 다래 익을 때 가라 : 이팝나무는 농촌의 일손이 바쁠 때 이기에 가서 눈총 받지 말고 다래 익는 9월에 가서 대접을 받으라는 말
- 다래
 - 중국에서는 '후도'라 불림. 열매가 주렁주렁 처마에 달린 등불처럼 달린다 하여 유래한 말
- 할미꽃에 얽힌 이야기
 - 손녀들을 찾아간 할머니가 냉대 받고 쫓겨나 거리에서 얼어 죽었는데 그 자리에 꽃이 피. 그 꽃 이름을 할미꽃이라 불임
- 나팔꽃
 - 열대 아시아가 원산,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냉쿨이 자람
- 며느리 밥 풀꽃
 - 착한 며느리가 구박을 받아 쫓겨나 얼어 죽었는데 그 자리에 밥풀처럼 생긴 꽃이 피
-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읽고 내용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이야기를 듣고 직접 관찰 해 보고 느낌 말해보기
- 식물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범교과 교육과 연계한 환경교육>

환경이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가올 우리 지구의 미래가 환경보존과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학교교육에서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자연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을 육성시키며 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학교 환경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초등학교의 환경교육은 범교과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른생활 교과에서부터 나무 꺾지 않기, 나무 심고 가꾸기, 휴지 버리지 않고 버려진 휴지 줍기, 생활폐수 줄이기 등의 내용들을 소재로 많은 단원들이 짜여져 있고, 사회 교과만 보더라도 우리 고장의 발전을 다룬 단원에서는 도시 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제기되는 교통적체, 도시 매연, 공장폐수 같은 것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토론의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시나 구청 단위로 재활용 달력을 나누어 주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감시하고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환경정화로 한 학기에 2~3시간씩 학년, 학반별로 자연보호 활동을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아쉬운 것은 자연보호와 환경오염 등에만 편중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내용이다. 물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자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작용, 교류, 환경 체험적인 교육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범교과 교육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른생활과 미술교과 시간을 통합적으로 이용하여 자연보호와 환경오염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그리기를 해 봄으로써 아동들의 가슴 속에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심어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국어시간을 통해서도 환경글짓기를 할 수 있다. 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글쓰기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환경 동화, 환경 논설문등 다양하고 좋은 글이 많이 나올 것이며, 돌려가며 읽어 보고 서로의 글을 음미함으로써 환경 사랑이 곧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나가는 등불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지형, 자연 환경, 우리 고장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등 관련된 단원을 통해 환경과 연계된 교육을 할 수 있다. 특히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교통문제와 매연, 농촌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농촌 공업 단지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들이 농사와 토질에 미치는 영향, 해안 지역의 바다 오염, 그리고 토양 오염 등을 공부하고 토론함으로써 환경과 인류와의 관계에 대해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과학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다. 실험한 후의 약품을 바로 버리지 않고 특정 용기에 모아 교육청으로 가져가 일괄 처리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좋은 환경

교육이 될 것이다. 또한 자연물 관찰과 식물관찰 단위에서는 식물이름 알기와 이름표 붙이기, 식물 관찰일기 쓰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환경만화 그리기, 환경퀴즈, 하천과 숲 속 생물 조사하기, 환경신문 발간, 그 외에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주방세제 안 쓰는 날, 샴푸·린스 안 쓰는 날, 환경일기 쓰는 요일 등과 같이 과제를 통해 아동들의 수준에 맞는 환경이론과 체험적인 교육으로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교실 생활에서는 분리수거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철저한 분리수거를 시행하며, 절약과 적절한 소비 역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동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환경을 지켜나가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 이해를 통한 인식시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느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암기가 아닌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호주국립공원의 거대한 자연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마인드는 부럽기도 했고 탄성을 자아내는 감동을 주기도 했다. 주민들은 아주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기도 했지만 그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연친화적인 행동들이 바로 그들의 환경을 지켜나가는 지킴이였던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환경교육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생각된다.